

##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박은희<sup>1</sup>, 정현주<sup>2\*</sup>

<sup>1</sup>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sup>2</sup>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Influencing Factors on Breast self-examination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Eun-Hee Park<sup>1</sup>, Hyun-Ju Jeong<sup>2\*</sup>

<sup>1</sup>Adjunct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Nambu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Nam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26일이었고, 간호대학생 240명을 편의 추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통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유방자가검진 여부와 식행동이었고, 설명력은 14.2%이었다( $F=19.53, p<.001$ ).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의 지속적인 수행을 도울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간호대학생 스스로 올바른 식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식생활을 평가하고,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건강신념, 라이프스타일, 식행동, 유방자가검진 수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breast self-examination performa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April 12 to April 26, 2021. Data was gathered from 240 nursing students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as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a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WIN 25.0 program.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breast self-examination performance were found to be breast self-examination and dietary habits with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being 14.2% ( $F=19.53, p<.001$ ). Based on this study, further study may be needed to evaluate the dietary habits of nursing students so that they can practice proper eating behavior. In addition, to maximize the educational effect, there may need to be a development of programs aimed to prevent breast cancer among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Health beliefs, Life style, Dietary behavior, Breast self examination (BSE) performance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the Nambu University in 2018.

\*Corresponding Author : Hyun-Ju Jeong(jhjudede@nambu.ac.kr)

Received November 30, 2021

Revised January 28, 2022

Accepted February 20,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암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유방암 20.5%, 갑상선암 19.1%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였던 갑상선암이 2위로 하락하고 유방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유방암 발생률은 젊은 연령이 호발하고 있는데 주로 호발연령이 40대로 37.1%를 차지하고, 20-30대는 약 15%로 서구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1]. 유방암 발병 연령은 50세를 기점으로 50세 이전에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점점 낮아져 최근 35세 미만의 여성에서의 유방암 발생률은 서양보다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유방의 밀도가 조밀한 편이어서 유방암 발병률이 높으며, 35세 미만의 유방암은 그 이상 연령의 폐경 전 유방암에 비해 세포주기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높아 나쁜 임상적 예후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2]. 2018년 암등록 통계에 의하면, 유방암의 연령군별 암발생 순위는 35-64세군에서 1위, 15-34세군에서 2위로 나타났으며,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1993년-1995년 79.3%에서 2014년-2018년 93.3%를 보였다[1]. 간호대학생은 35세 미만의 여성들로 다수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남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남성 유방암 발생률도 1%에 도달하나 무관심 등의 이유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고 있어[3], 남학생을 포함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여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방암의 위험인자에 노출을 줄이는 1차 예방과 조기 검진을 통해 조기 치료를 받게 하는 2차 예방이 중요하다. 유방암의 위험요인으로는 가족력, 빠른 초경, 늦은 출산, 폐경 지연, 방사선 노출, 호르몬 보충요법, 비만, 고밀도 유방 등이 있다. 예방 수칙으로는 금연, 금주, 운동, 균형 잡힌 식사와 짜고 탄 음식 먹지 않기, B형간염 예방접종, 비만관리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암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4]. 대학생 시기는 독립성이 증가하며 생활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여러 모임에 참여가 많아 음주의 기회가 증가하며 불규칙한 식사등으로 식습관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다[5]. 특히 간호대학생은 간호학의 포괄적이론 및 핵심술기에 대한 학업 부담감과 교

육과정 특성상 재학 중 병원이나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부적절한 건강습관과 식습관을 유발하기도 한다(6).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지는 것은 암 예방에 필수적이며, 건강과 관련된 지식은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신념을 변화 시키고 건강 행위의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해 [7]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군에 속하는 대학생의 경우 라이프스타일을 확인하여 향후 암 예방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식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영양지식[8,9],이나 건강관련 요인[10], 식생활 태도[9,10], 건강관심도에[9]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실제 식생활 및 유방자가검진 수행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

Brown 등[5]에서는 유방암 검진 권고안으로 2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유방자가검진을 시행하고, 35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유방자가검진뿐 아니라 2년 간격으로 전문가에 의한 유방검진을, 40세-69세의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유방촬영을 하도록 제시했다. 이 중 유방자가검진은 매년 시행하는 유방촬영술이나 임상진찰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와 상응한다는 점에서 유방암 조기 발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11]. 미국에서는 유방촬영술 및 임상진찰과 유방자가검진을 포함해서 모두 20세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12], 실제 유방암 환자의 70% 이상이 유방의 이상을 자가검진에 의해 발견하고 있다[4]. 유방암 조기발견에 있어 매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유방자가검진의 높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유방자가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여성은 많지 않으며 젊은 여성의 경우는 현저하게 낮다. 그 이유는 유방자가검진방법을 모르거나 자가검진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또는 귀찮아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13]. 그러나 유방자가검진 실천하지 않은 대상자의 실천의도를 파악한 결과,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교육경험보다는 유익성이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14], 젊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유방자가검진의 유익성을 강조한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대상자는 여중, 여고생, 여대생, 30~40대, 중년의 여성 등으로만 이루어졌고, 여성들의 유방자가검진 수행률은 16.7%에 그치고 있다[15]. 구성

원 중 다수가 여성인 간호대학생이 유방암자가검진 등의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졸업 후 미래의 간호사로서 대상자에게 건강사정 및 교육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유방암 조기발견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신념, 라이프스타일, 식행동의 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변수들이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유방암 예측과 유방자가검진 수행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을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유방자가검진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유방자가검진관련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 수행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유방자가검진관련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 수행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건강신념 및 라이프스타일, 식행동, 유방자가검진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통계적으로 파악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G광역시와 J도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연구에 참여할 것을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G\*Power 3.1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유의 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를 유지하기 위한 표본수를 확인한 결과 199명으로 계산되었다. 이를 근거로 20%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4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한 15명을 제외하고 225명을 최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건강신념 36문항, 라이프스타일 9문항, 식행동 12문항, 유방자가검진 수행 16문항, 일반적 특성 12문항으로 총 8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3.1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건강신념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건강신념 정도는 Champion[16]이 개발하고, 정숙명[17]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6개의 하위영역, 총 36문항으로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민감성 5문항, 심각성 7문항,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유익성 4문항, 장애성 6문항, 확신성 11문항, 건강동기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저 36점 최고 1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민감성 .92, 심각성 .85, 유익성 .79, 장애성 .74, 확신성 .91, 건강동기 .7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민감성 .94, 심각성 .87, 유익성 .88, 장애성 .83, 확신성 .85, 건강동기 .70이었다.

#### 2.3.2 라이프스타일

국립암센터에서 제시하는 암 예방수칙을 반영하여 노정옥, 최수연[18]이 개발한 도구로 금연, 청결, 스트레스관리, 건강생활, 비만관리, 운동에 관련된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최저 9점에서 최고 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암예방 관련 라이프스타일을 잘 실천함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0이었다.

#### 2.3.3 식행동

국립암센터에서 제시하는 암 예방수칙을 반영하여 노정옥, 최수연[18]이 개발한 도구로 편식, 과식, 짠 음식, 훈제음식 등에 관련된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암예방 관련 식행동을 잘 실천함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 2.3.4 유방자가검진 수행

유방자가검진 수행 정도는 Wood(1994)가 개발한 Breast Self Examination Proficiency Rating

Instrument (BSEPRI)를 박은하[19]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시진 7문항, 촉진 9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수행' 1점, '수행하지 않는다' 0점으로 최고 16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자료수집 전 N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1041478-2021-HR-001)를 받았고, 도구개발자들에게 승인요청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논문과 도구 사용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G광역시와 J도에 거주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240부 배부하였으며, 이 중 회수되지 않거나, 불성실한 15부를 제외하고 22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특성과 유방건강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건강신념, 라이프스타일, 식행동 및 유방자가검진 수행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유방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수행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

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건강신념, 라이프스타일, 식행동 및 유방자가검진 수행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고,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선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48명(21.3%), 여자 177명(78.7%), 연령은 평균  $21.33 \pm 1.51$ 세였다. 학년은 1학년 16명(7.1%), 2학년 19명(8.4%), 3학년 131명(58.2%), 4학년 59명(26.2%)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224명(99.6%), 종교유무는 아니오 163명(72.4%)이었다. 유방질환, 유방암 진단경험은 예 3명(1.3%), 가족 중 유방암 진단여부는 예 20명(8.9%)이었다. 지난 1년간 유방자가검진 경험은 예 34명(15.1%), 주위에 유방자가검진 권하는 사람 유무는 예 36명(16.0%)이었으며, 권하는 사람은 가족 16명(7.1%)이었다. 유방자가검진 방법 교육 경험은 예 145명(64.4%), 의사에게 유방암 검진 받은 경험은 예 4명(1.8%)이었고, 유방촬영이나 유방초음파검사 경험은 예 9명(4.0%)이었다.

#### 3.2 건강신념, 라이프스타일, 식행동, 유방자가검진 수행정도

연구대상자의 건강신념, 라이프스타일, 식행동, 유방자가검진 수행정도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건강신념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2.92 \pm .43$ 점이었다. 건강신념의 하위항목들의 정도는 민감성  $1.97 \pm .89$ 점, 심각성  $2.01 \pm .89$ 점, 유익성  $3.62 \pm .91$ 점, 장애성  $2.34 \pm .87$ , 확신성  $3.73 \pm .76$ 점, 건강동기  $3.74 \pm .60$ 점이었다. 라이프스타일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78 \pm .55$ 점 이었다. 식행동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03 \pm .76$ 점 이었다. 유방자가검진 수행의 정도는 16점 만점에  $6.40 \pm 6.56$ 점 이었다. 하위항목들의 점수는 시진은 7점 만점에  $2.96 \pm 2.92$ 점, 촉진은 9점 만점에  $3.42 \pm 3.87$ 점 이었다.

Table 1. General and BSE related Characteristics

(N=225)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M±SD	Range
Gender	Male	48	21.3		
	Female	177	78.7		
Age(years)	19-21	143	63.6	21.33±1.51	19-32
	≥22	82	36.4		
Grade	Freshman	16	7.1		
	Sophomore	19	8.5		
	Junior	131	58.2		
	Senior	59	26.2		
Marriage	Unmarried	224	99.6		
	Married	1	0.4		
Religion	No	163	72.4		
	Yes	62	27.6		
Diagnosis history	No	222	98.7		
	Yes	3	1.3		
Family history	No	205	91.1		
	Yes	20	8.9		
BSE experience	No	191	84.9		
	Yes	34	15.1		
BSE recommend	No	189	84.0		
	Yes-Family	16	7.1		
	Yes-Friend	3	1.3		
	Yes-Professor	17	7.6		
BSE education experience	No	80	35.6		
	Yes	145	64.4		
Dr examination	No	221	98.2		
	Yes	4	1.8		
X-ray, Sonography	No	216	96.0		
	Yes	9	4.0		
		225	100.0		

\* BSE : Breast self-examination

Table 2. Health Beliefs, Life style, Dietary behavior and BSE Performance Degree

(N=225)

Variables	Range	Min	Max	M±SD
Health beliefs	36-180	50	154	2.92±.43
Sensitivity	5-25	5	25	1.97±.89
Severity	7-35	7	35	2.01±.89
Benefit	4-20	4	20	3.62±.91
Obstacle	6-30	6	28	2.34±.87
Assurance	11-55	11	55	3.73±.76
Health motivation	3-15	3	15	3.74±.60
Life style	9-45	19	45	3.78±.55
Dietary behavior	12-60	16	60	3.03±.76
BSE performance	0-16	0	16	6.40±6.56
Inspection	0-7	0	7	2.96±2.92
Palpation	0-9	0	9	3.42±3.87

\* BSE : Breast self-examination

Table 3. Differences in health beliefs, life style, dietary behavior, and breast self-examin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225)

Characteristic	Categories	n	Health beliefs			Life style			Dietary behavior			BSE performance		
			Mean±SD	t or F	ρ	Mean±SD	t or F	ρ	Mean±SD	t or F	ρ	Mean±SD	t or F	ρ
Gender	Male	48	2.84±.62	-1.10	.278	3.88±.55	1.30	.196	3.22±.71	2.04	.043	5.44±6.16	-.72	.470
	Female	177	2.95±.36			3.76±.55			2.97±.76			6.16±6.17		
Age(yr)	19-21	143	2.92±.42	-.32	.748	3.78±.59	-.07	.942	3.04±.76	.23	.817	5.76±6.19	-.82	.416
	≥22	82	2.94±.46			3.79±.48			3.01±.75			6.45±6.12		
Grade	Freshman <sup>a</sup>	16	2.91±.27	.06	.982	3.86±.48	.45	.715	2.96±.94	3.64	.013	6.25±6.62	.35	.789
	Sophomore <sup>b</sup>	19	2.92±.51			3.88±.66			3.21±.86		b)d	5.84±5.84		
	Junio <sup>c</sup>	131	2.93±.45			3.78±.59			3.13±.76			5.70±6.24		
	Senior <sup>d</sup>	59	2.91±.41			3.73±.44			2.77±.59			6.68±6.05		
Religion	No	163	2.94±.44	1.17	.245	3.77±.55	-.68	.496	3.02±.75	-.28	.778	5.67±6.14	-1.35	.180
	Yes	62	2.87±.40			3.82±.57			3.05±.78			6.90±6.19		
Diagnosis history	No	222	2.92±.43	-1.59	.113	3.78±.55	-1.04	.301	3.02±.75	-.96	.336	5.95±6.13	-1.13	.260
	Yes	3	3.31±.65			4.11±.80			3.44±1.37			10.00±8.66		
Family history	No	205	2.90±.42	-2.97	.003	3.77±.54	-.94	.347	3.01±.73	-.81	.429	5.83±6.06	-1.40	.162
	Yes	20	3.19±.44			3.89±.64			3.19±.98			7.85±7.04		
BSE experience	No	191	2.91±.45	-1.07	.290	3.78±.57	-.23	.817	3.05±.78	.98	.327	5.13±5.95	-6.14	<.001
	Yes	34	2.97±.27			3.80±.40			2.91±.57			10.94±4.91		
BSE recommend	No	189	2.90±.44	1.91	.123	3.79±.56	.17	.920	3.05±.78	.66	.578	5.66±6.07	2.21	.088
	Yes-Family	16	3.12±.38			3.75±.66			2.92±.55			6.50±5.92		
	Yes-Friend	3	3.13±.17			3.59±.28			2.56±.61			5.00±7.81		
	Yes-Professor	17	3.02±.28			3.76±.43			2.93±.60			9.59±6.54		
BSE education experience	No	80	2.91±.45	-.30	.766	3.93±.64	2.68	.008	3.25±.90	3.04	.003	5.18±6.17	-1.51	.132
	Yes	145	2.93±.42			3.71±.48			2.90±.63			6.47±6.13		
Dr examination	No	221	2.92±.43	-.06	.955	3.78±.55	-.89	.372	3.02±.76	-.26	.794	5.90±6.13	-1.89	.060
	Yes	4	2.94±.21			4.03±.39			3.13±.32			11.75±5.85		
X-ray, Sono	No	216	2.92±.43	-1.43	.155	3.77±.55	-1.34	.181	3.03±.76	.11	.914	5.97±6.15	-.44	.663
	Yes	9	3.12±.26			4.02±.53			3.00±.71			6.89±6.70		

ρ<.05

\* BSE : Breast self-examination

Table 4. Correlation among health beliefs, lifestyle, dietary behavior, and breast self-examination

(N=225)

Variables	Health beliefs							Life style	Dietary behavior	BSE performance
	Sensitivity	Severity	Benefit	Obstacle	Assurance	Health motivation	Total			
Sensitivity	1									
Severity	.550**	1								
Benefit	-.036	.124	1							
Obstacle	-.157*	-.099	.217**	1						
Assurance	-.108	.049	.552**	.283**	1					
Health motivation	.315**	.391**	-.110	-.120	-.026	1				
total	.527**	.714**	.541**	.310**	.532**	.470**	1			
Life style	-.084	-.013	.116	.599**	.256**	-.041	.238***	1		
Dietary behavior	-.031	.003	.039	.520**	.186**	.063	.224**	.659***	1	
BSE performance	.072	.070	.046	.109	.008	.067	.117	.151*	.165*	1

\*ρ<.05, \*\*ρ<.01, \*\*\*ρ<.001

\* BSE : Breast self-examination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 수행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 수행의 차이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건강신념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가족 중 유방암 진단여부( $t=-2.97, \rho=.003$ )였다.

라이프스타일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유방자가검진 방법 교육경험( $t=2.68, \rho=.008$ )이었다.

식행동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성별( $t=2.04, p=.043$ ), 학년( $F=3.64, \rho=.013$ ), 유방자가검진방법 교육경험( $t=3.04, \rho=.003$ )이었다. 성별은 남자일수록 식행동이 높았으며, 학년은 2학년이 4학년 보다 식행동이 높았다. 유방자가검진방법교육경험은 없을수록 식행동이 높았다.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지난 1년간 유방자가검진 경험이였다.

### 3.4 건강신념, 라이프스타일, 식행동, 유방자가검진 수행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건강신념, 라이프스타일, 식행동, 유방자가검진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유방자가검진 수행은 라이프스타일( $r=.151, \rho=.023$ ), 식행동( $r=.165, \rho=.013$ )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건강신념( $r=.117, \rho=.080$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3.5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선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독립변수는 조사대상자 특성 중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유방검진여부(아니오 기준)와 유방자가검진 수행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라이프스타일, 식행동 등 총 3개를 투입하였다.

분석 전 오차항들 간의 자기상관이 있는지 Durbin-Watson 통계량을 통해 알아본 결과 1.801로 2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들 간의 자기상관은 없었다.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는지 표준화잔차를 구한 결과 모두  $\pm 3$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다. 투입된 독립변인들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구한 결과 1.004로

나타나 독립변인들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분석결과 변인들의 설명력은 14.2%였고,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19.53, \rho<.001$ ). 회귀분석 결과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방유방자가검진 여부( $\beta=.35, \rho<.001$ )와 식행동( $\beta=.19, \rho=.003$ )이었다. 즉, 유방자가검진을 한 경험이 있을수록, 식행동이 높을수록 유방자가검진 수행이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breast self-examination performance (N=225)**

Variables	B	SE	$\beta$	t	$\rho$	R <sup>2</sup>	Adj-R <sup>2</sup>	VIF
(constant)	-5.55	2.06		-2.70	.008			
BSE (1=Yes, 0=No)	6.02	1.06	.35***	5.66	<.001	.115	.111	1.004
Dietary behavior	1.53	.51	.19**	3.03	.003	.150	.142	1.004
$F=19.53, \rho<.001$								

\*\* $\rho<.01$ , \*\*\* $\rho<.001$

\* BSE : Breast self-examination  
Dummy : BSE(1=Yes, 0=No)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을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유방질환이나 유방암 진단을 경험한 대상자는 1.3%로 간호대학생으로 연구한 양영희[20]의 7.9%와 30-40대를 대상으로 한 김미영 등[15]의 29.9%보다는 현저히 낮았다. 가족 중 유방암 진단 여부에서는 대상자의 8.9%가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숙[21]의 10.6%, 임승주 등[14]의 15.8%보다는 낮았다. 최선미[22]는 유방자가검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유방질환 유무, 유방암의 가족력, 유방암 환자를 만난 경험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어린 연령에 따른 낮은 건강 관심도, 스스로 건강하다는 생각, 대학생 시기의 낮은 암 사망률이나 이환률로 인한 부족한 관심 때문으로 사유된다 [7].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유방자가검진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대상자의 1년간 유방자가검진을 수행한 것은 15.1%로 나

타났으며, 김미영 등[15]의 연구에서 12.2%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유방자가검진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유방암 예방방법임에도 그 실천 정도가 여전히 낮으며[15], 간호대학에서 이들의 상당수가 교육경험은 있으나 교육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행도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일회성 수업의 지식전달 방법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행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유방자가검진법 교육과 함께 유방암 조기발견을 위해 실제로 수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시사한다.

유방자가검진 교육경험과 관련해서는 대상자의 64.4%가 교육 경험이 있었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임승주 등[14]의 23.7%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간호대학생에게 제공되는 일시적인 교육만으로는 유방암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유방자가검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방자가검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핵심술기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유방자가검진을 권하는 사람은 교수가 7.6%, 가족이 7.1%로 나타났는데 간호학 전공의 학생으로서 유방자가검진을 주로 학교의 교과과정을 통해 교수로부터 수업 중 권유 받았거나, 가족 중 유방암 진단 받은 비율이 8.9%로 가족력이 있는 직계가족 즉 어머니, 자매가 유방암에 걸렸던 사람이 1명 이상인 경우 유방암 위험이 2배 증가하기에 위험을 알고 가족이 유방자가검진을 권한 것으로 사료되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암관련 검진 권유가 있는 경우 향후 검진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3].

의사에게 유방암 검진 받은 경험은 1.8%였다. 임상 의의 유방 진찰은 유방촬영술의 단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검진 방법이다. 한국유방암학회[24]에서는 유방암 가족력이나 유전자 변이가 동반된 고위험군 여성은 체계적인 검진 및 방법을 제시 받을 수 있고, 전문가가 진찰을 진행하므로 유방 진찰로 발견되는 유방의 변화와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를 의논할 수 있으며, 유방암 조기 발견에도 도움이 되고, 유방촬영술에서 발견되지 않는 유방암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건강신념은 유익성, 확실성, 건강동기가 높게 나왔고 민감성은 가장 낮게 나타나 김미영 등[15]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민감성이 높으면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

다고 인식하여 유방자가검진 행위를 잘 수행하기에[15] 유방암 발병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라이프스타일은 5점 척도 3.78±.55점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야기[7]의 연구결과 3.12점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간호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식행동은 5점 척도 3.03±.76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육가공품의 섭취, 뜨거운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육류 등을 섭취하는 비율과, 소금과 인스턴트식품 섭취도 높으며, 채소 및 콩류와 과일의 충분한 섭취, 규칙적인 식사, 균형잡힌 식사 등은 낮은 실천률을 보여[25], 대학생의 식이 관련 건강행동이 암 예방을 위해서는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 스스로 현재의 식생활을 평가하고, 단계적으로 식생활 습관을 변화시켜 올바른 식행동을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암 예방을 위한 균형 잡힌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유방자가검진 수행은 16점 만점에 6.40±6.56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일회성이 아닌 교육과, 유방자가검진 수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억을 상기시켜 유방자가검진 빈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 수행의 차이는 건강신념에서 가족 중 유방암 진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가족 중 유방암 진단경험이 있을수록 건강신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건강신념의 하부항목에서 유익성 3.62±.91점, 확실성 3.73±.76점, 건강동기 3.74±.60점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 김미영 외[15]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유방암 발병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안 모색과 함께 건강신념과 같이 대상자 특성에 따른 유방암 예방을 위해 유방자가검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효과를 강조하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 수행의 라이프스타일과 식행동에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유방자가검진방법 교육경험이 없을수록 라이프스타일과 식행동이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학생들은 암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주위 사람들의 암 발생 빈도가 낮아 암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암 예방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대학생이 되



어 자유로워지면서 불규칙한 식사와 술, 담배와 같은 부정적인 건강행위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7], 대학생 시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관심영역을 반영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유방자가검진 수행은 라이프스타일( $r=.151, \rho=.023$ ), 식행동( $r=.165, \rho=.013$ )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건강신념( $r=.117, \rho=.080$ )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건강을 위한 생활양식과 습관의 연구결과 자신이 체중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식생활 관리 또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건강신념은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유익성, 확신성, 건강동기는 높으나 민감성, 심각성이 낮아 관심도와 수행의 필요성이 낮아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결과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서는 유방자가검진 여부( $\beta=.35, \rho<.001$ )와 식행동( $\beta=.19, \rho=.003$ ) 이었고,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14.2% 이었다( $F=19.53, \rho<.001$ ). 즉, 유방자가검진을 한 경험이 있을수록, 식행동이 높을수록 유방자가검진 수행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영향요인으로는 검진시기를 잊어버리거나,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라 하였다[20]. 유방자가검진은 비용이 들지 않고 간단하며 배우기 쉬운 암 조기발견 방법으로 유방의 작은 변화를 조기 진단을 할 수 있기에[27], 지속적으로 유방자가검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건강관심도가 있으며[9],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행위를 더 많이 수행 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관심도와 식이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한 식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28], 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 자율적 동기가 식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므로 건강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6]이라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식행동이 지속적으로 유방자가검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을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건강신념, 라이프스타일, 식행동, 유방자가검진 수

행간에 상관관계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식행동과는 정적 상관관계 있었지만, 건강신념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유방자가검진 여부와 식행동이었다. 즉, 유방자가검진을 한 경험이 있을수록, 식행동이 높을수록 유방자가검진 수행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대상자 선정에서 편의의 추출방법을 사용하였고,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모든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유방자가검진의 경험과 식행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경우 교육경험은 있으나, 교육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행도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수행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스스로 올바른 식행동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식생활을 평가하고, 유방암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를 일반화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의 대학으로 확대하는 반복연구와 추후 유방자가검진 수행 및 식행동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Annual report of cancer statistics in Korea in 2018. <https://www.cancer.go.kr/docview/preview.do?uu id=2aaa6cfd-04df-4f44-9298-cae4e670d289.pdf>
- [2] J. H. Yu. (2016). *Gene expression analysis of hormone receptor positive breast cancer under the age of 35*.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ine, Dept. of Surgery. doctoral degree. Seoul.
- [3] H. W. Lee & S. Y. Jun. (2014). Accurate Evaluation of Unilateral Breast Masses in Men Aged over 40 Years. *Journal of Breast Disease*, 2(1), 22-26. DOI : 10.14449/jbd.2014.2.22
- [4] Nation cancer information Center: National Cancer Prevention Guidelines. <https://www.cancer.go.kr/lay1/S1T200C203/contents.do>
- [5] O. N. Brown, L. E. O'Connor & D. Savaiano. (2014). Mobile MyPlate: A pilot

- study using text messaging to provide nutrition education and promote better dietary choice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2(5), 320-327.  
DOI : 10.1080/07448481.2014.899233
- [6] J. S. Park, Y. J. Lee, M. K. Park &, Y. H. Jeong. (2020). Effects of Health Behaviors, Health Self-efficacy and Motivation on Eating Habi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5(4), 599-609.  
DOI : 10.21097/ksw.2020.11.15.4.599
- [7] Y. K. Yang. (2015). Factors Influencing Preventive Health Behaviors for Cancer in Undergraduate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2(1), 59-68.  
DOI : 10.7739/jkafn.2015.22.1.59
- [8] S. O. Kim & S. M. Kim. (2015). Nutrition Knowledge, Food Habit Problems and Dietary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4), 465-475.  
DOI : 10.5977/jkasne.2015.21.4.466
- [9] Y. J. Oh. (2020). Factors Influencing dietary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5), 83-91.  
DOI : 10.22156/CS4SMB.2020.10.05.083
- [10] S. O. Kim. (2015). Health-related Factors,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Habits among Nursing and Allied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3(3), 158-167.  
DOI : 10.15434/kssh.2015.28.3.158
- [11] Y. W. Lee. (2000). A Study for the Health Education of Breast Self-Examinatio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2(4), 717-726.
- [12] R. A. Smith et al. (2015). Cancer screening in the United States, 2015: A review of current American cancer society guidelines and current issues in cancer screening. *A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 65(1), 30-54.  
DOI : 10.3322/caac.21261
- [13] H. A. Seok et al. (2008). A study on the knowledge and degree of implementation of breast cancer and breast self-examination in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wha Health & Nursing*, (42), 23-33.10.
- [14] S. J. Lim & I. S. Jang. (2017). The Effect of Knowledge of and Attitude to Breast Self-examination 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 to Pract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30(3), 202-210.  
DOI : 10.15434/kssh.2017.30.3.202
- [15] M. Y. Kim, E. H. Kang & E. K. Byun. (2013). Factors Influencing the Practice of Breast Self-Examination Among Women in Their 30s and 40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9(1), 37-45.  
DOI : 10.14370/jewnr.2013.19.1.037
- [16] V. L. Champion. (1993). Instrument refinement for breast cancer Screening behaviors. *Nurses Research*, 42(3), 139-143.  
DOI : 10.1097/00006199-199305000-00003
- [17] S. M. Chong. (2000).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breast Self-Examination Knowledge, Health Belief and Self-Efficacy of Women : centering around women in several areas of Seoul master degre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degree. Seoul.
- [18] J. G. Rho & S. Y. Choi. (2013).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s, Cancer Preventive Dietary Behavior, and Lifestyles of Adults in the Jeonbuk Ar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1), 201-213.  
DOI : 10.5934/KJHE.2013.22.1.201
- [19] E. H. Park. (2003). The Effects of the Breast Self-Examination Participant Education program on Breast Self-Examination Complianc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n Adult Women. *Asian Oncology Nursing*, 3(2), 133-144.
- [20] Y. H. Yang. (2007). The Effects of a BSE(Breast Self-Examination) Education Program on Knowledge,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Level in Fe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3(2), 277-283.
- [21] Y. S. Kim. (2013).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n breast self-examination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3(6), 350-360.  
DOI : 0.5392/JKCA.2013.13.06.350
- [22] S. M. Choi. (2006). *The Influencing Factors of Breast Self-Examination Practice Among Hospital Nurses*.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Daejeon.
- [23] J. W. Oh & Y. S. Moon. (2012). Factors Associated with Stages of Adoption for Breast Cancer Screening : Based on the Precaution

Adoption Process Model - Focusing on Comparisons Between Nurses and General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1), 246-257.

DOI : 10.5392/JKCA.2012.12.11.246

- [24] Suggested citation : Korean Breast Cancer Society. Breast Cancer Facts & Figures 2020. Seoul : Korean Breast Cancer Society, 2020. <https://www.kbcs.or.kr/journal/file/210107.pdf>
- [25] Y. N. Lee & I. S. Kwon. (2014). Factors Influencing Practices of Health Behavior for Cancer Prevention in University Students. *Asian Oncology Nursing*, 14(2), 109-118. DOI : 10.5388/aon.2014.14.2.109
- [26] W. S. Jeong, (2020). Lifestyle and habits for health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28-128.
- [27] S. J. Kim, J. M. Lee, H. Y. Min & H. Y. Min. (2017).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Breast Self-Examination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2), 147-157. DOI : 10.4094/chnr.2017.23.2.147
- [28] E. K. Byun & M. Y. Kim. (2016). Factors Influencing Dietary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25(2), 81-88. DOI : 10.12934/jkpmhn.2016.25.2.81

### 박 은 희(Eun Hee Park)

[정회원]



- 2002년 2월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15년 2월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1년 2월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7년 8월 ~ 현재 :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 2020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임상간호, 건강사정
- E-mail : taechomein@hanmail.com

### 정 현 주(Hyun Ju Jeong)

[정회원]



- 1991년 8월 ~ 2013년 2월 : 전남대학교병원 간호사
- 1991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00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임상간호, 간호문화
- E-mail : jhjuddee@nambu.ac.kr